

# 승리부터 트와이스 · 세븐틴까지... 7월 가요대전



## 남녀 아이돌 · 혼성그룹 · 듀오 · 솔로 등 음원 강자 · 믿고 듣는 가수들까지 '총출동'

이만하면 의심의 여지 없이 7월 대전이다. 음원, 음반 강자는 물론이요, 믿고 듣는 가수들까지 월드컵 열기가 사그라든 시기를 노리고 '총출동'한다. 남녀 아이돌, 혼성그룹, 남성듀오, 혼성듀오, 솔로까지 장르도 분야도 다양한 7월 대전 출격 가수들을 알아본다.

### ◆ 트와이스 · 마마무 · 세븐틴, 연일시상식급 컴백 라인업

남녀 아이돌 그룹을 대표하는 규모 큰 팀들이 대거 컴백을 앞둔다. 2일 '블랙 에이핑크'를 선언하며 1도 없애고 컴백한 에이핑크에 이어, 4일엔 라이징 루키 곧은차일드가 여름과 어울리는 청량한 신곡 '렛 미'를 발표한다. 이후 9일엔 음원 음반 유튜브 전방위 최강자 트와이스가 컴백한다. 휘성이 작사에 참여한 텐스 더 나

잇 어웨이'를 발표하는 트와이스는 첫 여름컴백에 걸맞는 서머송으로 또 하나의 커리어를 예고한다. 구구단의 세정 미나 내영은 '구구단 세미나'라는 유닛으로 10일 '샘이나'를 발표한다. '프로듀스01 시즌1' 멤버이기도 한 세 사람의 조합이 과연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킬 지도 관심사.

여기에 16일 마마무와 세븐틴이 동시 맞붙는다. 명실상부 음원 최강자 마마무는 '레드 문'으로 도발적 매력을 예고했고 강력한 팬덤을 보유한 세븐틴은 한여름의 청량한 분위기 가득 담긴 신보 '유 페이크 마이 웨이'로 또 다시 명곡을 내놓을 준비 마쳤다.

혼성그룹의 등장도 눈길을 끈다. 현아와 펜타곤 후이 이던으로 구성된 3인조 혼성그룹 트리플A는 18일 신곡을 발표한다. 이들의 첫 곡이었던 '365 프레스'처럼 독특한 콘셉트와 장르를 선보일 수 있을 것인지

관심사다. 믿고 듣는 명곡 제조기 카드 역시 25일 신곡을 발표하며 컴백을 앞둔다. 남녀 아이돌과 또 다른 혼성그룹의 매력이 여름에 톡할 수 있을지 기대 더해진다.

### ◆ 승리 · 윤미래 · 제시 · 청하, 솔로들이 펼칠 반란

아이돌 그룹에서 컴백러쉬 그친다면 '7월 대전'이라는 수식어 붙일 수 없을 터. 대단한 솔로군단이 잇따라 모습을 드러낸다. 윤미래는 5일 새 정규앨범 '제미니'를 발표한다. 16년만에 '제미니' 두번째 시리즈를 발표하는 윤미래는 제대로 된 힙합 앨범을 선보이겠다는 각오다.

나인뮤지스 경리는 5일 첫 솔로곡 '어젯밤'을 발표하며 솔로 데뷔를 앞둔다. 다음 날인 6일엔 '센 언니' 제시가 미국적인 트로피컬 신곡 '다운'을 발표한다. 그레이가 프로듀싱한 '다운'은 세련된 사운드에 제시의 랩과 보컬이 더해져 파워를 더할 예정이다.

솔로 데뷔 후 연일 명곡을 내놓으며 차세대 음원 강자로 자리매김한 청하 역시 18일 신곡을 발표하며 컴

백한다.

여름과 잘 어울리는 미니앨범을 예고한 청하가 차트의 반란 주인공이 될 지도 관심사 여기에 박빙 승리가 20일 더 그레이트 승리를 내놓으며 솔로 컴백을 예고했다. 데뷔 후 첫 솔로앨범인만큼 YG와 승리가 얼마나 공 들였을 지 안 봐도 뵈한다. 예능인, 사업가 이전에 박빙 승라인만큼 그가 내놓은 신곡에 관심이 높다.

### ◆ 멜로망스 · 신현희와김루트, 음원강자를 잊지마

완전히 수면 위로 올라온 음원 강자들 역시 7월에 속속 등장한다. '신불', '유' 등 음원차트 최상위권 진출 및 통런까지 이어가는 명품 듀오 멜로망스는 3일 신곡 '동화'를 발표한다.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과 부드러운 힘 있는 보컬의 조화로 큰 사랑 받은 멜로망스는 팀명다운 노래로 차트 호성적을 노린다. 여기에 '명랑 어쿠스틱 듀오 신현희와김루트'가 11일 신곡을 발표하며 '오빠야'의 아성을 넘을 준비를 마쳤다.

## 친근해서 더 웃긴 '대탈출'



발하고 있다. 케이블TV tvN 새 예능프로그램 '대탈출'이 2일 첫 방송됐다. '대탈출'은 의문투성이 초대형 밀실탈출을 위한 힌트부성이 멤버들의 기습전외 팀플레이가 돋보이는 초대형 탈출 게임쇼다.

앞서 '대탈출'은 예능프로그램 '더 지니어스', '소사이어티 게임' 등 '뇌섹(뇌가 섹시한, 똑똑한)'에 능한 진성기를 이끈 정종연 PD와 버라이어티 예능의 선무주자인 코미디언 강호

기존 '뇌섹' 예능프로그램과는 결을 달리하는 '대탈출'이다. 문제 풀이를 힘과 직관으로 풀어내는 출연진들의 모습은 색다른 재미를 유

눈길을 끌었다.

기존 '뇌섹' 예능프로그램에서는 지식인으로 보여지는 멘사회원, 명문대 학생 등이 출연해 치열한 두뇌 싸움을 펼쳤던 것과 달리, '대탈출'은 그렇지 않았다. 예능인들로 구성된 출연진들이 아주 일반적이고 평범한 수준의 퀴즈를 고심 끝에 풀어냈다. 사진 모임을 가진 멤버들은 제작진에게 간단한 퀴즈 문제를 받았지만 그조차도 풀지 못해 고군분투했다. 본격적인 게임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다. 강호동은 우아스럽게 힘을 사용해 캐비닛을 열었고, 결국 낚을 놓은 이들은 생리대를 씌어 먹기도 했다. 이는 시청자들에게 친근함으로 다가왔다.

완벽하게 문제를 찾아 풀어내기도 했다. 첫 번째 방에서 2시간 내내 고군분투했던 이들은 비교적 쉬운 트릭으로 감춰진 문을 찾아냈고 방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어진 방에서도 출연진들은 발군의 실력으로 또 다른 방을 찾아냈고 계속해서 문제풀이를 이어갈 수 있었다. 단순히 웃음의 영역에서 그치지 않았으며, 문제 풀이에 대한 기쁨도

함께 제공했다.

앞서 제작진이 제작했던 '더 지니어스', '소사이어티 게임'의 경우 고난도의 문제 풀이로 진입 장벽이 있었다. 그러나 '대탈출'은 비교적 직관적인 방법과 풀이를 사용해 많은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했다. 대중들의 접근성을 더욱 높인 것.

반면 '더 지니어스'를 기대했던 시청자들에게 '지루하다'는 평가를 들어야 했다. 치열한 대결보다는 오히려 협동의 느낌이 강했다. 문제 풀이 또한 너무 직관적으로 이뤄졌으며, 시청자가 고민해서 풀어볼만한 문제 또한 없었다. 이러한 요소들은 기존 '더 지니어스'에서 보여졌던 재빠른 판단력과 술수를 기대했던 팬들에게는 아쉬움으로 다가왔다.

분명 새로운 시도기는 하다. 힘과 직관에 의지해 문제를 풀어내려는 출연진들이 주는 또 다른 웃음이 있다. 아직 본격적인 문제 풀이에는 돌입하지 못한 상태. 이들이 어떤 웃음으로 '더 지니어스'와 다른 매력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 '당신의 하우스헬퍼', 청소 통해 힐링 선사



을 잘 이어갈 것'이라고 자신했다. 전우성 PD는 "집안에 있고 청소를 하고 이러다 보니 툰이 잘못하면 다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런 소재를 발랄하게 표현해보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원작에 비해 연령대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청자들의 나의 일처럼 공감하게 하고 싶었다. 익히 보던 배우 분들을 잊지만 처음 보는 듯 한 낯선 느낌의 배우들이 꽤 많이 있다. 이 소재에 접근할 때 많이 보던 인물 보다는 새로운 인물들이 나와 하석진 씨를 만나면 보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관련 포인트를 전했다. 그러면서 전우성 PD는 시청자들의 우려에 대해 "사람들이 느끼는 재미와 감동의 포인트는 다르다"며 말했다.

'당신의 하우스헬퍼'가 시청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감싸 안을까. 2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KBS2 새 수목드라마 '당신의 하우스헬퍼' 제작발표회가 열려 전우성 PD를 비롯해 배우석진, 보나, 이지훈, 고원희, 전수진, 서은아 등이 참석했다.

'당신의 하우스헬퍼'는 완벽한 남자 하우스헬퍼가 머릿속도 집도 엉망이 된 여자들의 살림과 복잡한 인생까지 프로페셔널하게 비워내고 정리해주는 '라이프 힐링' 드라마다.

이날 정성호 센터장은 "웹툰을 원작으로 했다. 드라마에서 처음 선보이는 하우스헬퍼라는 소재가 아늑하길 바란다. 청춘, 라이프 힐링 트렌드를 드라마로 승화시켜 공감, 감동, 치유의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KBS 수목드라마 전통

한 낯선 느낌의 배우들이 꽤 많이 있다. 이 소재에 접근할 때 많이 보던 인물 보다는 새로운 인물들이 나와 하석진 씨를 만나면 보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관련 포인트를 전했다. 그러면서 전우성 PD는 시청자들의 우려에 대해 "사람들이 느끼는 재미와 감동의 포인트는 다르다"며 말했다.

이어 보다는 "시청률보다 좋아해주는 분들을 위해 나중에 배우들이 같이 팬사인회를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신의 하우스헬퍼'는 4일 밤 10시에 첫 방송된다.

## 쇼미더머니7, 상금 2억 · 베팅 · 1차 예선 폐지

Mnet 래퍼 서바이벌 '쇼미더머니 트립플세븐(Show Me The Money 777)'이 이번 시즌에서 파격적으로 달라진 3가지 킬링 포인트를 공개했다. 지난 6월 27일 '쇼미더머니 트립플세븐'은 총 상금이 지난 시즌의 2배인 2억 원으로 오른다고 밝혀 더욱 강력해진 스케일을 예고했다. 지원자들의 열띤 반응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만큼 이번 시즌에서는 누가 상금의 주인공이 될지 공금증이 모아진다.

또 이번 '쇼미더머니 트립플세븐'에는 전에 없던 새로운 장치를 도입해 변화를 꾀한다. 바로 베팅 시스템이 결합된 룰에 따라 래퍼들의 랩 배틀이 펼쳐지는 것. 승패에 따라 돈을 뺏고 뺏기는 과정을 통해 상금을 쟁취할 우승자를 가

러내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으로 진화, '쇼미더머니'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짜릿한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송에서 보여졌던 수천여 명의 지원자들이 한 공간에 모여 치르는 대규모 1차 예선이 폐지, 새로운 래퍼 선발 시스템도 도입된다. 따라서 그 동안 1차 예선장에서 가능했던 현장지원도 폐지

될 예정이며, 대신 공식 이메일과 홈페이지, 인스타그램을 통한 영상 지원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 영상 심사를 통과한 실력과 래퍼들로 시작하는 만큼 첫 히트부터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가 형성될 전망이다.

한편 1차 프로듀서 라인업으로 스윙스와 기리보이가 참여를 확정했다고 알려져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원자들 역시 물리고 있는 상황. 오는 7일까지 지원할 수 있다. 오는 9월 첫 방송 예정.

### 오늘의 운세 2018년 7월 4일 수요일 (음력 5월 21일)



▶**경축** 계획한 일이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위 협조가 절실하다. 작은 실수로 점수를 잃는 일이 없도록 매사 차분한 언행이 필요하다. 3, 4, 9월생 □, ㅈ, ㅎ 성씨 동료 협조로 신종 사업을 시작하면 좋다. 5, 6월생 검은색을 삼가라.



▶**경계**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 승산 있을 계획도 잘 풀리지 않는다. 성공의 주인공은 본인이 만든다는 것을 알아. 고여 썩어가는 물이 되지 않도록 자기계발에 힘써야 한다. ㄱ, ㅍ, ㅊ 성씨 집나간 사람에게 당신이 남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시켜 줘야 한다.



▶**경계** 지나친 욕심을 삼가고, 지혜롭게 화합할 때 주위 사람들에게 찬사를 듣는다. ㄱ, ㅈ, ㅎ 성씨 모든 일을 겸손한 자세로 하면 바라던 대로 성취할 수 있다. 4, 5, 8월생 인생에 도움을 주는 자의 조언을 되새겨 더 큰 꿈을 쫓는 데 디딤돌로 삼으라.



▶**경계** 6, 9, 11월생 사업은 당장 작은 이익을 노리기보다 긴 안목으로 생각하며 실행할 때 순조롭게 진행된다. 그러나 무슨 일든 신중히 생각한 뒤 처신하라. ㄱ, ㅈ, ㅎ 성씨는 대인관계로 신경 쓸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언행을 조심하라.



▶**경계** 남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현재 위치를 곳까지 지켜 나갈 때 푸르른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다. 기분을 새롭게 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ㄱ, ㅈ, ㅎ 성씨 휴식 뒤의 상쾌한 기분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라.



▶**경계**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것은 힘들지만 ㄱ, ㅈ, ㅎ 성씨의 도움이라면 가능하다. 그러나 무모한 일을 추진하면 복이 화로 바뀐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7, 8, 12월생 마음의 병을 방지하고 방치하다 깊이 부리를 내리니 조심하라.



▶**경계** 1, 2, 3월생 서쪽 사람 말을 귀담아듣지 말고 한길만 향하라. 꾸준히 해온 일의 성과를 포기하지 않고 진행할 때 기본 소식이 있겠다. 한 우물만 파면 금전적인 이익이 엇보인다. 10, 11, 12월생 파란색을 삼가고, 검은색을 입어 힘과 용기를 나타내라.



▶**경계** 사업에 승산을 두고 달리는 것도 좋지만, 가정 화목 이야말로 모든 것을 단단하게 성장시킬 울타리를 알아야 한다. 1, 5, 6월생 가족과 함께 단란한 시간을 갖고 대화하라. 각자 제 길을 걸으면 파멸이 눈앞에 다가올 뿐 길은 없다. 오렌지색이 좋다.



▶**경계** 의욕과 자신감은 넘치지만, 도가 지나쳐 방임을 초래해 손해 볼 수 있겠다. 2, 8, 12월생 각별히 신중한 태도가 요구될 때다. 마무리 짓지 못하고 또 다른 일을 벌이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겠다. 확장보다 내실을 기하라.



▶**경계** 4, 8, 10월생 목적인 것을 소신껏 밀어붙이면 성공한다. 사업, 직장관계는 성실을 다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는다. ㄱ, ㅍ, ㅊ 성씨 노력 여하에 따라 결과가 있듯 더 많은 수양이 필요하다. 의료업 종사자는 내실을 기하라.



▶**경계** 힘들고 복잡한 일들이 단번에 거니니 먹을 것을 찾아 나서야 할 때다. 4, 9, 11월생 ㅈ, ㅈ, ㅎ 성씨는 마침내 길하겠으나 지출 또한 많다. 성급하게 서두르면 오히려 더 늦는다. 4, 5, 10월생 서쪽에서 새로운 희망이 온다.



▶**경계** 모든 사람이 나를 우러러볼 것이라는 착각과 환상에서 벗어나라. 환락에 빠져들기 쉽다. 주의해야만 파멸을 막을 수 있다. 7, 9, 12월생 모든 것은 한계가 있는 법이다. 본연의 자질을 잃지 말라. 남과 같이 일하는 자는 꼭 참고 머물러야 한다.